

혁신도시 기관들 사회공헌 활발

사학연금·aT·한전KPS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 나주 기관 6곳 포함...농어촌공사·한전KDN·콘진원도 2년 연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 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3곳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선정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인정기관' 350곳에 이들 기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기관 350곳 가운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6곳이 포함됐다.

특히 사학연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PS는 제도 시행 이래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는 각 기관의 환경경영, 사회공헌 추진체계, 지역사회 문제인식, 프로그램 실행, 지역네트워크 연계, 성과영향, 윤리

경영 7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졌다. 올해는 심사지표를 환경경영(E), 사회공헌(S), 윤리경영(G) 3개 영역으로 나누어 7개 분야, 25개 지표로 평가했다.

선정기관들은 지역사회공헌과 지역상생,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든 혁신도시 기관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학연금은 최근 나주지역 노인 복지시설 7곳에 전달할 편백나무 베개 300여개와 햇군고구마바 등 후원물품을 나주시에 기부했다.

편백나무 베개는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직접 나서 만들었다. 햇군고구마바 3370봉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물에서 구매했다.

사학연금은 지역 저소득층 예체능 재능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전남여성·나주상고 특수학생 대상 금융지식나눔 교육 기부, 나주 특산물 구매,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지역 문화강좌 운영,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레 광고 사업, 지역아동을 위

한 물품기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사학연금이 추운 연말 연시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길 바란다"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행복충전활동'이라는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어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과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락, 김치, 쌀 등 지원을 확대해 약 2000여 명에게 식사 지원을 했다.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과 착한 선결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지역기관들과는 '빛가람사회적가치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공사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 공기를 도입하고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를 열어 임직원 380여 명이 헌혈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라이언과 편하게 쉬어요” 28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분관 8층 생활전문관에 마련된 ‘요기보×카카오프렌즈 콜라보 소파’ 임시 매장에서 젊은 층 인기 캐릭터를 내세운 빈백 소파를 선보이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운영되는 이 매장은 모든 품목을 12%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광주신세계 제공>

‘K-푸드’ 인기로 농수산식품 수출 첫 100억 달러 돌파

aT,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념식을 열었다.

공사는 이날 서울 aT 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 위기 속에서도 최고기록을 쓰고있는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집계를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말까지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98억 달러 대비 15% 증가한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부터 선별·가공·포장, 물류, 통관, 해외 판촉까지 수출을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판촉을 벌이며 해외시장에서 K-푸드 인지도를 높여 왔다.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해외 한국식품관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 판로를 넓혔다. 또 선박과 항공 물류가 마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전용 선박을 확보하고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행했다.

김진진 사장은 “그동안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네덜란드와 같이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RPC 절반 수매가 결정...평균 6만2800원

지난해보다 9.2%·6400원 하락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7만4300원

올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미국종합처리장(RPC) 절반 가량이 비 수매가를 결정했다.

2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비 수매가 결정된 RPC 11곳의 평균 수매가(40kg·조곡)는 지난 27일 기준 6만28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6만9198원)보다 9.2%(-6400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전남에 있는 미국종합처리장은 모두 22곳으로, 연말 절반 정도가 수매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년 이맘때에는 대부분 RPC가 수매가를 확정했었지만, 올해는 수확기 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쌀값의 영향을 받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가격을 확정된 11개 RPC들을 들여다 보면 ▲6만2000원 3곳 ▲6만3000원 7곳 ▲6만4000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인기 비 품종을 생산하는 전북(6만4000~6만7000원)과 충남(6만2000~6만7000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매가를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 RPC들의 비 수매가는 오는 30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 수확기 들어 쌀값은 두 달 연속 하락 추세다. 지난 25일 기준 산지(도정된) 쌀값은 20kg에 5만1254원으로, 지난해보다 5.9%(-3201원) 하락했다.

지난 26일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는 29만 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8000t)보다 78%(13만1000t) 늘어났다. 전남지역 농협들은 이달 23일 기준 올해 계획한 자체 매입량 36만 4000t의 108.2% 수준인 39만4000t을 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만3000t)에 비해 62.1% 증가한 양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을 비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7만43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7만5140원에 비해서는 1.1%(-840원) 떨어진 가격이다. 이는 10~12월 수확기 전국 산지의 쌀값 평균을 비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비 잠정등의 A등급은 40kg 포대당 5만7150원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확정 가격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비축미곡 35만t과 피해 비 947t을 매입했으며, 이날 당정은 내년 1월 안에 초과 생산된 쌀 20만t을 추가 매입하는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022t) 증가했다. 신곡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더 많은 31만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목표가격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시장격리 조건으로 내건 초과생산 비율 3%의 두 배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이엔티’ 우수 조달업체 표창 28일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공진·오른쪽)은 ‘2021년 하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선정된 장성 천장구조시스템 전문 기업 제이엔티(대표 한희경)를 찾아 조달청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모전 ‘전용 앱 제작’ 아이디어 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대국민 공모전’에서 제주도 청년후계농 강민경씨의 ‘농지은행 전용 앱 제작’ 등을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농지은행’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분야는 농지은행 신규사업안과 대국민 공감을 위한 슬로건으로 나뉘었다.

아이디어 부문은 ‘농지은행 전용 앱 제작’(강민경), 슬로건 부문에서는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박소영) 등이 대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